



## “공정한 사회! 열린 고용! 희망찬 미래!”

행사명: 2012 공공기관 열린 채용정보 박람회

행사기간: 2012년 11월 23일(금)~24일(토)

10:00~18:00, 2일간

장 소: 서울 대치동 SETEC 제2·3전시장

주 최: 기획재정부

주 관: 한국조세연구원

후 원: 고용노동부·KBS

정 리: 김종원·봉우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김철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국장

2012 공공기관 열린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김철주 국장님과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2012 공공기관 열린 채용정보 박람회의 취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열린 채용정보 박람회는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장을 만듦으로써 모든 구직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또한,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고졸채용 등 열린 고용 활동을 독려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열린 채용정보 박람회가 올해로 3회째로 개최되는 박람회인데, 이전 1, 2회 박람회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으셨는지, 이번 3회 박람회에서는 어떻게 보완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채용정보 박람회에는 총 1만 8천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만족도 조사결과, 참가자의 83% 이상이 행사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하여 성공적으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참석자들 중 1:1멘토링 및 일부 인기기관 부스의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했다는 반응이 있어 이를 적극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부스별로 상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1:1멘토링관 앞쪽으로 충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타로카드·캐리커처 및 채용 컨설팅 등 대기시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총 몇 개 기관이 참석하는지, 이번 박람회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출입은행 등 90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세부적으로는 에너지 분야 18개, SOC 분야 12개, 금융분야 14개, 농림·수산·환경분야 7개, 고용·보건·복지분야 8개, 외교·법무분야 3개, 산업·진흥·정보화분야 9개, 검사·검증분야 8개, 문화·국민·생활분야 4개, 연구·교육분야 7개 기관입니다.

참석 대상은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일반 구직자이며, 약 1만 5천명 이상의 구직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고졸채용정보전용관'입니다. 고졸자 채용이 많은 기관 위주로 구성된 전용관을 통해 고졸 구직자에 특화된 맞춤형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고졸자 채용 직무 및 직렬, 향후 경력개발 경로·교육훈련 등 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되니 고졸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어떠한 정보들이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별로 부스를 설치하여 기관 인사 담당자의 채용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고, 구직자의 관심이 높은 36개 주요 기관에 대해서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며, 30개 기관에서는 신입사원 선배들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1:1 멘토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입사 서류면접 화술·이미지메이킹 등 취업 시 필요한 노하우 컨설팅, 모의면접, 명사 특강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계획이나 방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MB정부 들어 '08~'09년간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한 공공기관에서는 '10년부터 신부가가치창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12년에는 1.5만명 수준의 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13년 중에도 공공기관에서는 해외진출, 신성장동력 발굴 등 유망분야 등을 중심으로 1.5만여 명을 채용하여 청년층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력·스펙보다는 실력에 따라 대우받는 열린 고용사회 구현을 공공기관이 선도해나가기 위해 전체 채용규모 중 2.5천명을 고졸자로 채용하고, 채용인원의 최소 30%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대학 졸업자 중에서 채용하여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지역인재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